

복제소 '영롱이'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월머트 박사팀에 의한 체세포 복제 양 '돌리'의 발표로 세계가 들끓은 것은 1997년 2월의 일이었다. 그 후 미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였고, 이번이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체세포 복제 소 '영롱이'를 탄생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며,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복제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사건은 47년 전인 1952년 미국의 브리그와 킹이 수정란 세포를 떼어 붙은 개구리를 탄생시킨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비해 복제 양 '돌리'는 체세포를 떼어 내어 복제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복제 양 '돌리'는 몸의 한 부분에서 떼어 낸 체세포를 사용하였다는 데 과학자들 사이에는 비상이 걸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체세포를 사용하여 복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생식세포를 사용한 복제와 비교해 보면 수 천 배나 많이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60억 되는 지구상의 인류의 수를 몇 년 내에 수십 배로 늘려놓을 수 있으며,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도 무수한 형질의 동물을 수 십 배 만들어 낼 수 있다. 생식세포의 복제에서는 성장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모체와 같은 형질로 될 확률이 매우 희박한데 비해, 성숙된 체세포의 복제에서는 모체와 거의 같은 형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구상에 멸종해 가는 동물을 부활시키고, 희소 동물들을 증식시킨다는 데는 긍정적인지만, 인간의 복제가 현실화 된다면 지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 복제 문제는 엄청난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간 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금지금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김성규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인간복제 과정에서 인체 세포 사용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 여러 국가들도 '생물윤리법'을 제정하여 복제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다. 이 복제 문제는 제 2차 세계 대전 때 만들어졌던 원자폭탄에 이어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후 원자폭탄은 원자력발전으로 이어져 인류의 복지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제 문제도 복제의 부정적인 면을 인간들의 이성과 지혜로 잘 극복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생산으로 인류복지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생물의 증식 방법이 생식세포의 수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비해 체세포의 수정으로 생물의 증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 의한 생물 증식 방법의 확대라는 점에서 과학이 이른바 가장 큰 업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문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권력이 주어지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부함과 경제적인 풍요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성품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생명존중 사상이 철저한 불법의 바다로 귀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학은 발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것을 수용하고 바라보는 인간들의 성품이 문제가 될 뿐이다. 모두에게 보살심이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들 무슨 문제 이겠는가. 萬古長空 一潮風月.

“아난타의 재활용정신 배우자”

♣ 종이컵·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규비유경》에서 '아난타'는 자신의 새 옷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누더기 옷은 옷이므로, 헌 옷은 배갓잇으로, 헌 배갓잇은 방 깔개로, 헌 깔개는 발걸레로, 헌 발걸레는 마룻걸레로, 헌 마룻걸레는 갈기갈기 찢어 진흙과 섞어 반죽해서 벽을 바르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첫날인 2월22일, 백화점에서는 여전히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해 이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전단향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쇠로 된 발우만 사용토록 할 정도로 재사용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승가의 대중생활, 절약과 근검이 계율의 한 부분이었다던 당시의 생활상은 오늘날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대비된다.

매년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약 38만 t(하루 1천35t). 문제는 이 제품들이 쓰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 쓰레기 대란과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4천억원의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 처리비만도 1천억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환경피해 복구비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감소책은 환경보호를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10명 이상 유통업체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치가 시행됐으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3개월 동안 과태료가 없는 데다 돈을 받고 쇼핑백을 판매할 경우 고객들의 항의를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와 보완책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팔 때 그 가격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가만 따져 가격을 1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못해 사용을 자제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최고 3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과태료 액수도 대형 유통업체의 규모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0% 이상 회수, 재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을 준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도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이런 의식을 바꿔야 한다. 편하다고 일회용품을 계속 쓰다가는 더

큰 환경비용을 물어야 하고 환경과에 의한 부작용도 감수해야만 한다. 장바구니를 들고 백화점에 가는 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물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적게 쓰는 것의 공덕을 알고 소비·검소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남비를 없애는 것이다.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 절약(Reduce)운동 등 '3R 운동'의 종착역은 바로 검소한 생활문화의 정착에 있을 것이다.

《일회용품이 쓰는 기간》
 ▲스티로폼, 알루미늄 캔=50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병, 일회용 칫솔=100년 이상 ▲일회용 컵, 일회용 나뭇가지=20년 이상
 김재경 기자(jgkim@buddhapha.com)

환경전문가들 정부 환경정책 부정평가

환경-경제정책 통합기구 설치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의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의 환경정책 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환경정책 담당 공무원, 민간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백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현 정부의 환경개선 노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정부의 환경개선 정도에 대해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변화했다'(47.0%)거나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41.1%)는 견해를 보였다. 현정부의 지난 1년간 환경정책 수행만족도에서는 '불만족·매우 불만족' 등 부정적 평가가 68.2%에 달한 반면 '만족'은 2.0%에 그쳤다.

이들의 66.2%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현정부가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도 26.5%에 달했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환경 및 경제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의 설치(67.11%)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46.3%)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44.9%) ▲물관리, 자연환경보전기능의 통합(22.1%) ▲환경 관련 법제의 강화(21.5%) ▲환경요인 감시 및 조사(19.5%) ▲환경정보화를 통한 정보공개(18.8%)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14.1%)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아동학대 상담전화

(02) 336-5242

'마땅히 지애의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기쁨이 여겨 뜻대로 먹여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타사경)

아동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린이보호지원회(회장 이배근)는 2월 22일부터 2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24시간 어린이학대 상담전화를 받고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어린이 학대 예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또 상담원을 직접 확대하는 어린이의 집에 보내 정도가 심할 경우 어린이보호시설로 데려와 숙식과 치료를 제공하고 어린이 전문 보육사를 배치해 상처를 치료할 계획이다. (02)336-5242

생활정보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생활 주민등록증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체 경신작업을 추진해 내년 3월까지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백화점 등 공공 장소에 설치된 무인 자동 발급기를 통해 시간에 구애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왕따 신고 1588-7179

교육부는 집단따돌림 대상 학생들의 신고 및 상담을 위해 전국 1백80개 지역교육청과 연결되는 단선전화(1588-7179, 친한친구라는 의미)를 2월 22일 개통했다.

"한국의 소리를 찾습니다"

환경부는 자연의 소리, 인공의 소리, 등·식물의 소리 등 각 지역별로 남기고 싶은 우리의 소리 100가지를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뒤 내년에 이를 녹취, 음반에 담아 유래·사연등을 실은 해설집과 함께 보급하기로 했다.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은 2월24일부터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1천 13억원에 대해 주인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금감원은 1만원 이상 계약자에게 주소로 우편안내 통지문을 보내고 1만 원 미만인 계약자에게는 보험설계사의 방문이나 전화로 지급을 알리기로 했다.

7일부터 'TEPS 강화'

EBS-FM은 'TEPS 강화'를 7일 신설해 매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TEPS는 서울대 어학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라디오 TEPS'는 현재 TEPS 시험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송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한국 1백년'...

MBC-TV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15분에 역사교양 다큐멘터리 '한국 1백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를 방영한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지난해 1백년간의 의식주 등 구체적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인구의 변화 등 사회변천과 가치관의 변화를 조망해 나간다.

3일 자연다큐 '동강'

KBS-1TV는 3일 밤10시 토종 들고기 '쉬리'와 영일 동강의 4계절 생태계를 촬영한 자연다큐멘터리 '동강'을 방영한다. 백룡동굴의 비경과 미국에서 들어와 토착화된 무지개 송어의 번식지도 함께 공개된다.

순수한 정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아달아(다사그림, 脫자그림(수액파 차단) 특별보사

한국 수액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전 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 수정 히란야 10개 부작,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미트 히란야 '의료용' '氣' 발생기구 :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미트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나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치크리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 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명명과 피라미트 히란야 문예 출판사

한국 피라미트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설 문예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건강에의 신비! 옥

柳山家玉

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정신적으로도, 방고에도 너무나 부담없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년도 젊어진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원주를 기른 결과 솟는 쥐의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중(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더라도 신경통에도 60%의 확률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도 합니다. (한방의 세계적인 권위인 박경중의원 임상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참선용옥방석, 한자용 옥법검메트, 중·중구구, 복대, 무릎대, 옥비누의 기초화장품, 녹차잔의 옥도자기

신 옥목 108염주 (10mm알, W60,000) 목걸이 겸용 옥본 환한계 제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用. 품 마음자리를 잘 붙을 있고, 탐진치의 願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명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세요.

서울을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옥옥)

심야 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를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정된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밀미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므로 마루방담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 0343)468-7200(대)
 *양분부: 0343)445-6090
 *FAX: 0343)445-3370